

- 지 면 안 내
- 02 한성대 발길, 위험하다
  - 03 낙산의 메아리는 완벽한 커뮤니티일까?
  - 04 전자기기는 유용하기만 하다? '테크노 스트레스'
  - 05 '중강현실'의 현재와 미래
  - 08 스타일을 입는 도시, 일행이 필요하다



## 삼학송 캠퍼스의 낭만은 여전히 유효하다

취업기획 인터뷰를 하다 보면 '대학의 낭만을 만끽하라'는 조언을 자주 듣게 된다. 대학 신문에서 취입에 초점을 맞춘 인터뷰까지 코너로 진행하는 요즘에 캠퍼스의 낭만이 헛말인가 싶기도 하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캠퍼스의 낭만일까. 수업 한번쯤 결석하고 푸르게 펼쳐진 캠퍼스 잔디에 누워 책을 읽거나 혹은 기타라도 치고 놀기, 풋풋한 캠퍼스 커피가 되어 서로의 손을 잡고 캠퍼스 거닐기...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캠퍼스의 낭만이란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요즘 시대에 통용되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우선 언제부터 대학을 취입의 도구로 생각한 것일까. 진리의 상아탑이라 여기며 젊은 날을 마음껏 향유할 대학이란 공간은 언제부터 취업준비터로 무너져 내렸을까. 하지만 사실은 무너지지 않았다. 요즘도 몇몇 대학생들은 대학의 낭만을 즐기는 법을 안다. 인터넷의 가벼운 정보에 휩쓸리기보다 도서관을 놀이터 삼아 흥미 있는 분야의 책도 읽고 가끔은 혼자 생각해 잠기도 하는 것. 때론 친구들과 낙산 벤치에 앉아 미래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할 때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들어 즐길 줄 아는 학생은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강의가 있을 때만 학교에 책가방 하나 들고 오간다면 예나 지금이나 대학의 낭만과 거리가 멀다. 우리 학교엔 넓게 펼쳐진 푸른 캠퍼스는 없지만 낙산이란 아늑한 공간이 있다. 뜰어박치 원하는 책을 얼마든지 읽을 공간도 있다. 이도저도 싫다면 해질무렵 마음 터 놓을 친구, 선·후배와 함께 맥주 한 캔 들고 버스 한 정거장 거리의 낙산공원 성벽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는 건 어떨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캠퍼스로 눈을 돌려보자. 가슴에 열정을 품고 일상을 즐길 줄 아는 대학생이라면 취업이라는 단편적인 목표를 넘어 세상을 품에 안기에 충분하다.

이상이 편집국장

## 2학기의 대동제를 꿈꾸는 현무제, 4일부터 열려

### 낙산체전 오는 1일부터 11일까지 경기 예정



▲ 지난 해 열린 2009 낙산체전 중 농구경기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2학기의 대동제를 꿈꾸는 현무제가 '새로운 도전, 색다른 축제'란 슬로건으로 오는 4일 막을 올린다. 현무제는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공과대학생회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지는 2학기의 또 다른 축제다.

이번 현무제의 무대행사는 동아리 공연(오후 3시), 가요제(5시), 동덕여대 댄스팀 'Soul&G'와 B-Boy 게스트 공연, 초대가수 공연, 라운지 클럽(7시)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 부대행사로 동연과 공과대의 주점, 부스행사 등이 예정돼 있다.

부스행사에는 동아리 전시, 캐리커처, 네일아트, 타로점, 미니게임이 있으며, 동아리 공연에는 환음, 들불, Triax, NOD, 왕산악 등이 참여하고 매나니로, 이무기, 야구동아리 등이 행사 부스를 연다. 캐리커처 부스는 특별히 예니제품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무료로 학생들에게

캐리커처를 그려준다. OX퀴즈는 일반상식 외에 축제 이름의 의미부터 학교와 관련한 문제로 개교 38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준비했다. 특히 OX퀴즈는 3~4명이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는 점수제로 진행된다. 우승팀엔 외식상품권이 주어진다.

성스런(기계 3동연회장은 "아마추어와 프로란 컨셉으로 대학 동아리 댄스팀과 Battle of the year 2008에서 우승한 Last for one이란 B-Boy 프로팀을 섭외했다"고 전했다.

가요제 행사는 공대 학생회가 맡는다. 김용주(정통 4공대회장은 "공대축제에서 가요제는 매해 진행해온 행사다. 오디션을 통해 10팀의 학생이 무대에 오른다. 발라드, 댄스 등 장르를 적절히 배치하고 중간에 재미있는 미니게임도 넣어 지루하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주점

에 대해선 "과별로 주점을 나누지 않고 공대 전체를 대상으로 열 것이다"고 말했다.

라운지 클럽은 총학생회가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동제 일거리시 라운지 앞에서 열린 'Global Lounge Party'와 같은 형식이다. 장호철(경영 4총학생회장은 'Fun&Exciting'이 컨셉이다.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을 맞아 재밌게 놀아보잔 의미와 2학기에 신나는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 소개했다. 초대가수는 '시스타'와 '포맨'으로 결정됐다.

성스런 동연회장은 "2학기엔 학생회가 늘 따로 행사를 기획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학생회와 한성대란 이름으로 함께 축제를 준비하게 됐던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무대행사뿐 아니라 다채로운 다양한 행사가 많으니 오감으로 즐긴다는 컨셉의 대동제처럼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낙산체전은 1일부터 예선전을 시작해 다음 주 11일까지 진행된다. 경기종목은 축구, 농구, 발아구, 피구 4개의 구기종목이다.

▲축구는 무용학과와 인테리어학과 ▲역사학과와 ROTC가 대항하고 ▲피구는 시각·영상디자인학과와 경제·무역학과가 ▲발아구는 정보시스템공학과·컴퓨터공학과 ▲농구는 부동산학과와 정보시스템공학과, 무역학과와 인테리어학과가 대항한다.

종목별 우승팀의 상금과 상품은 1등에 상금 30만원과 트로피, 2등에 15만원을 수여한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단일팀보다 연합팀이 많이 출전해 종합점수를 환산하기 어려워 종합우승 대신 종목별 우승으로 바뀔"고 전했다.

이상이 기자 sangmi@hansung.ac.kr

## 한성미래위원회, 11월 초 활동마감 후 보고서 제출

지난 2월 발족한 한성미래위원회(공동위원장 정주택 총장·이종수 교수가 중진노의를 마무리 하고 최중단기에 이르는 의견을 정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성미래위원회는 1년동안 활동하며 우리학교가 50주년을 맞는 2023년을 중기계획으로, 2040년을 장기계획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

한성미래위원장 이종수(행정학과)교수는 "약 1년여의 활동 결과를 내년 1월 중 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며 "학교의 비전 문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논의내용에 대해 "교육목표, 공간 발전계획,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방안 등 세 가

지로 나누어 이야기 해 왔다"고 전했다.

세 가지 논의 내용 중, 교육목표의 세부 사항에 대해 그는 "다른 대학과 같은 길을 걷는 것보다 특색있는 발전을 위해 창업전문대학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청과 함께 정부사업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목표에 초점을 맞춘 교과과정개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각 과에는)기업에서 요구하는 영어실력을 채울 것, 대학서열 고정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문화된 인력 기르기 위해 이에 맞춘 교육과정과 발전시킬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9·10월 몇몇 언론사에서 시행한 대학평가의 결과에 대해 "우리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상당히 앞선 부분이 있고 순위가 없거나 부

족한 부분도 있다. 평가요소를 꼼꼼히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발전시켜나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평가내용에서 '교수의 연구, 실적 분야'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뒤로 부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승진의 심사를 한층 더 까다롭게 다룰 계획이다. 이종수 위원장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5년 안에는 평균적인 대학교육평가 순위 30위 인위부터 달성하고, 10년 안에는 15위까지 올라가려는 최종의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 1년 동안 활동한 한성미래위원회의 활동과 회의는 11월 초로 종료되며 활동 결과는 내년 1월 중에 보고서로 제출된다. 그는 "발표되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마스터플

랜의 계획과 전략을 수용하는 학생과 지원하는 교수 모두 가치를 공유하면서 추진의지를 가져 적극적으로 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예진 기자 edory11@hansung.ac.kr



▲ 지난 22일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전통 연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다.

이상이 기자 sangmi@hansung.ac.kr

### 사 령

입	면
수승기자	의원면직
곽소영(역사문화 1)	이정대(행정 1)
김보현(역사문화 1)	장영경(한국어문 1)
이경원(경영 2)	
이상현(한국어문 1)	

## 2010 제25회 한성문학상 현상 공모

참가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모집부문 :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5편 이상)  
주 제 : 자유  
마 감 일 : 11월 10일(수)  
발 표 일 : 12월 6일(월)  
수상자 발표와 수상작은 12월 6일에 발행하는 한성대신문 445호에 게재  
상 금 : 단편소설 60만원 및 상패  
시 40만원 및 상패  
제출 장소 : 학생회관 제1별관(우편취급소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

문 의 : 02)760-4186, press@hansung.ac.kr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고 결봉에 한성문학상 응모직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소속, 연락처 기재 필)

# 깜깜한 학교, 밤길 걷기 무서워요

지난 10월 20일, 오후 11시 30분 전 후로 주택기숙사로 돌아가던 익명의 한 여학생은 미래관 옆 보도를 걸어가 다 길가에 세운 차 안에 앉아 있던 한 남자와 마주했다. 그는 여학생과 누군가를 착각해 여학생을 불러 세웠고 급기야 차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다. 여학생은 학교를 가로질러 기숙사까지 가는 동안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친구와 통화를 해야만 했다. 그는 "불이 들어온 가로등도 몇 개 없는데 경비실까지 불이 완전히 꺼져 있어 불안하고 무서웠다"며 "외부에서 기숙사로 돌아올 때" 02번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오다 그나마 안전한 학교에서 내리는데 학교도 불이 꺼져 있는 때가 많아 무섭긴 마찬가지"고 말했다.

역시 기숙사에 사는 임하현(패디2)학생은 "밤 11시부터는 꺼져있는 불이 많아 다니기 무서울 때가 있다. 주택가에 위치해서인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에 설치된 외등은 대부분 오후 11시에서 자정사이엔 꺼진다. 각 점등시간을 살펴보면 창의관 옥상간점등과 인성관 후면, 옥상 조명을 조명은 오후 10시, 창의관 앞 주변등, 탐구관 거북광장과 후면외등, 동문 가로등은 11시에 소등된다. 탐구관 옥상과 복공실 방향 조명, 우촌관 교문, 학생관 옆 잔디등과 중문 방향 등, 지선교 외등 및 낙산동로, 공학관 테니스장 주변등, 공학관 주변 낙산외등, 진리관 운동장 조명은 11시 30분에 소등된다. 또 연구관 북부등과 미래관 주변등, 우촌관 중문 간판외등, 옥상, 우진사 계단 등은 자정에 소등되고 등문 및 연구관 북도 LED조명은 각각 새벽 5시와 6시까지 점등된다.

아간 순찰은 오후 10시~11시, 오전 1시 30분~2시 30분, 4시 30분~5시에 돌며 세부시각은 초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황용철(미래관 안내실)씨는 "건물 전체를 총마다 순찰하며 11시에 가로등들이 자동으로 꺼지지만

CCTV가 켜진 복도는 불이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상우(시설지원팀)팀장은 "전력소비 비용이 발생하면 곧 등록금과 직결되는 문제다. 교내 전체적으로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보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윤권(시설지원팀) 팀원은 "수시 일정으로 일시적인 야간점등을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운동장과 진리관 화장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야간 점등을 하며 자유롭게 학교를 이용해도 좋겠지만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 전했다. 그는 또 "기숙사 근처의 외등은 학교 관할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세울 수 없고 구청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CTV는 각 건물, 복도, 실습실, 통로 등 학교 곳곳에 약 187개가 설치돼 있으나(학교 홈페이지 학생지원-CCTV현황에서 확인 가능) 외부인 출입은 제재할 방도가 많지 않다는 점이

해당건물	장소 및 등기구	담당인내일	점등시간
진리관	운동장 조명		18:30~ 23:30
탐구관	탐구관 옥상조명	탐구관	18:30~ 23:30
	복공실 방향		
	거북광장 조명		
지선관	지선교 외등 및 낙산동로전등 등	공학관	18:30~ 23:30
	19:00~ 23:30		
공학관	A동 옥상(테니스장)		이용자 4인 이상
	B동 옥상(테니스장)		
탐구관	거북광장	탐구관	18:30~ 23:00
	후면		19:00~ 23:00
우진사	상,하부계단		18:15 ~ 24:00
	앞 주변등		18:30~ 23:00
창의관	옥상간점등	창의관	18:30~22:00
	인성관 후면		
미래관	옥상 조명을 조명	미래관	18:30~ 24:00
	주변등		18:30~ 22:00
	점등번호 조명		

문제다. 황용철씨는 "낯선 수상한 외부인인 경우 응수 등을 끌어낼 수 있지만 밤에 학생인지 외부인인지 구분하기 힘들어 특별한 제재가 어렵다"고 전했다.

앞에서 언급한 여학생은 "밤새 야간 점등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야간작

업 등을 하는 학생들도 있으므로 최소한 켜져 있어야 할 곳은 새벽 2시정도까지는 켜져 있으면 좋겠다. 다수의 문제는 아니지만 피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학교 측의 적절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간추린소식

### 제6회 한성공학경진대회 시상식 열려

한성공학경진대회 시상식이 지난 10월 8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한성공학경진대회를 담당한 최재봉(기계시스템공학)교수는 "학생 스스로 작품을 연구하고 완성하며 문제 해결능력을 높이는 데 시상 의미를 두었다"고 말했다.

부문별 수상자를 보면 작품 부문 ▲대상 '급발진 자율 방지 장치' 권오창(기계 4) 외 3명, ▲금상 '로봇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3종' 김진성(정통 4) 외 4명, 'Presentation Helper' 김진우(멀티 4) 외 3명, '영상처리를 활용한 증강현실(AR) 애니메이션' 김민지(멀티 3) 외 4명, ▲은상 'GPS를 이용한 자율주행 탐사로봇' 김대성(정통 3) 외 4명, 'openCV와 warping algorithm을 기반으로 한 iPhone용 가상성형 application' 함영성(최민회(정시 02) 외 2명, '3D AI SOCCER GAME' 장윤석(멀티 4) 외 2명, '지능형 로봇 김아지' 순현석(기계 4) 외 4명, 'Exploring Robot' 강태운(기계 1) 외 4명, '링구조를 이용한 2족 보행 로봇' 김병도(기계 3) 외 2명이다.

논문 부문은 ▲우수논문상 '지하철 개폐방향 정보전달 시스템 설계조사/분석' 김우진(산업 4) 외 1명, ▲논문장려상은 '네트워크 시뮬레이터(ns2)를 이용한 ad-hoc network상의 라우팅 프로토콜 분석' 강승훈(정통 3), '한성대학교 그린 IT 도입에 관한 연구' 김한솔(산공 3) 외 1명, '학교 공간 효율을 위한 체계적인 설비배치 계획(SLP)' 송나래(산공 4) 외 1명이 수상했다.

김보현 기자 annyung17@hansung.ac.kr

### 공대 취업아카데미 경진대회 시상식 가져

지난달 8일 공과대학 취업아카데미 경진대회 시상식이 미래관 DLC에서 진행됐다. 공대 취업아카데미는 기존의 일반적인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제작한 프로그램 등을 직접 평가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행사이다.

각 분야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엑셀 부분 대상 황진(컴공 4), 최우수상 김영민(산공 4, 김수래(산공 3) ▲파워포인트 부분 대상 서인철(기계 3) 최우수상 김수래(산공 3), 박현정(정시 4), 양은정(멀티 3), 김모란(멀티 3) ▲JAVA 언어 부분 대상 이정호(컴공 3) 외 2명, 이용원(컴공 3) 외 2명, 김양계(컴공 4) 외 2명, 최우수상 장규근(멀티 3) 외 1명, 김택원(멀티 4) 외 1명 ▲C언어 부분 대상 유준희(컴공 4), 최우수상 김양귀(컴공 4), 윤호영(산공 3) ▲입사 포트폴리오 부분 대상 공우진(산공 4), 최우수상 오종광(산공 4), 권희수(산공 4)

시상식 당일엔 우리 학교의 동문인 강동우(테라온 주식회사) 대표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박소영 기자 ksyoung@hansung.ac.kr

### 5기 취업커뮤니티 내년 5월까지 활동

취업 커뮤니티 5기의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10월 8일, 진리관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35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향후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설명이 이루어졌다. HRD 전문 교육서비스 전문(주)이시엠휴먼월드의 임흥성 대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해보고, 정보를 많이 얻어갈 바란다"며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실천을 배우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우리학교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학생들의 취업을 제고를 위해 취업관련 특화교육과 학생 중심의 취업관련 지원전략의 일환으로 취업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5기 취업커뮤니티 참가생은 내년 5월까지 활동 하게 된다. 취업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참가자는 취업 전문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 컨설팅을 제공 받는다.

조장원(산공 4) 학생은 취업 커뮤니티 참가제기에 대해 "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다"며 "같은 커뮤니티 사람들과 모두 좋은 결과를 얻어서 6개월 내에 취직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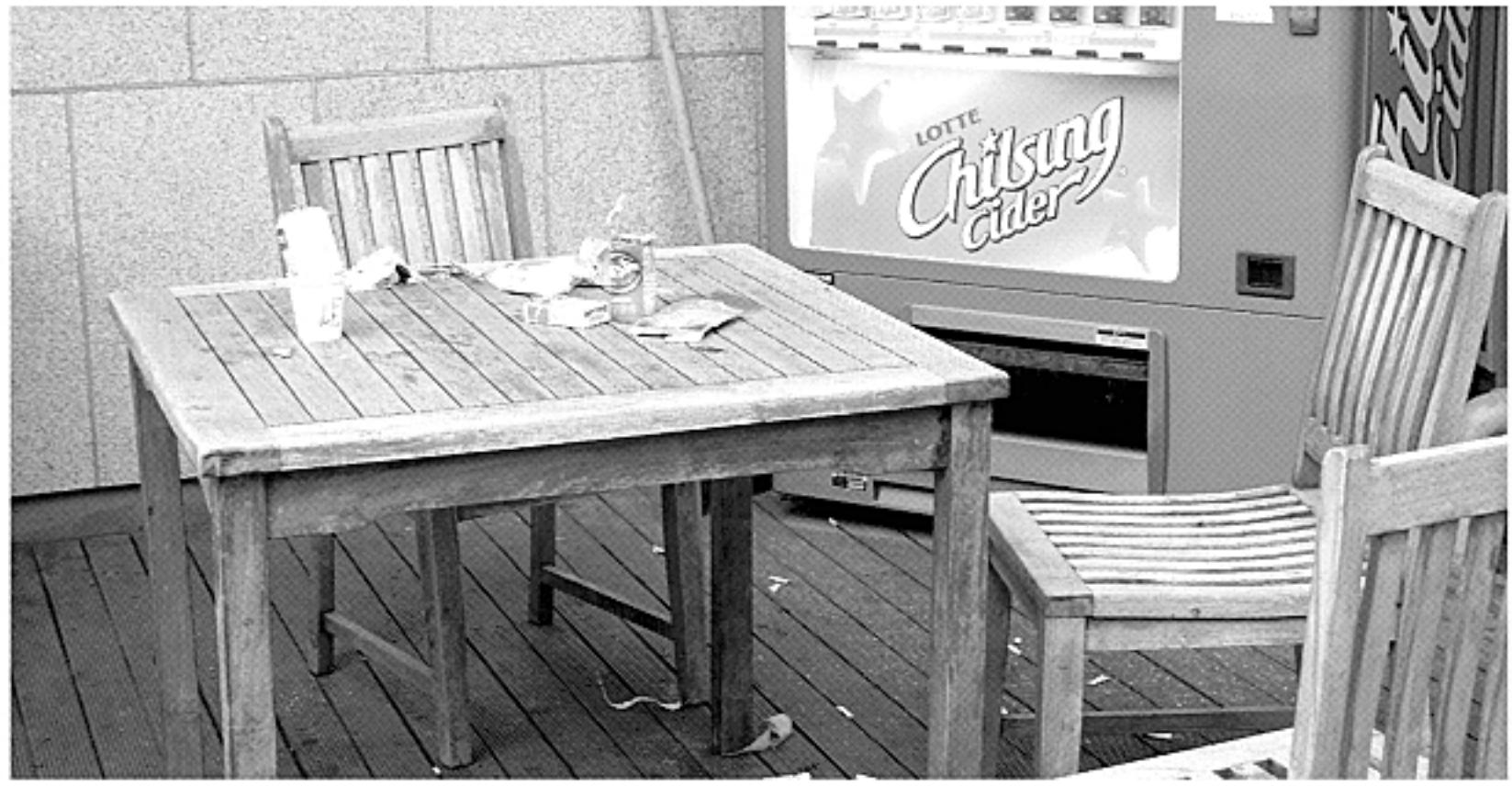
공유하 기자 gong0930@hansung.ac.kr

## 동정란

이상우(행정학과)교수 이 교수는 지난 10월 1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정부입부평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임기 2년)으로 위촉받았다.

주성희(패션디자인학과)교수 주 교수는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EPM(European Patchwork Meeting)행사의 2부 패션쇼에 참여했다.

윤재건(기계시스템공학)교수 윤 교수는 지난 10월 15일 제주 KAL 호텔에 서 열린 (사)한국가사학회 총회에서 2008년 가사학회에 기고한 CNG(가사) 사고 원인 연구논문이 특별논문상을 받았으며, 향후 2년 임기의 감사로 피선되었다.



### 주인의식 부재로 인해 쓰레기몸살 앓는 캠퍼스

학교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래관 열람실의 경우 24시간 개방하는 시험기간에는 벤치에 캔과 쓰레기가 마구 버려진 모습을 늦은 밤이나 다음날 아침이면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학내 쓰레기통이 아닌 바닥과 벤치에 '의식없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이다.

이현석(경제 2)학생은 "시험기간에 열람실 옥상에 버려진 담배꽂이를 볼 때마다 불쾌감을 느낀다"며 "분명히 금연구역이라고 적혀있는데 태연히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남기백(산공 4)학생은 "공학관 옥상도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 불쾌하다. 학생들이 무심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청소아주머니는 "미래관 앞 금연구역이라 마룻바닥에는 담배꽂이가 없지만 그 외의 공간,

중간 통로나 뒤 편에 벤치 쪽으로 가면 담배꽂이와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서 청소하기가 힘들다. 배치된 휴지통에 버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현석 학생은 "금연구역에 벤치를 치워서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재성(경제 1)학생은 "교내에 쓰레기통이 조금 더 설치가 된다면 바로바로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탐구관 뒤쪽 계단이 가장 쓰레기가 많다는 의견을 말한 남슬기(한국어문 2) 학생은 "매점과 가까워서 그런지 음식을 먹고난 채로 방치되어 쓰레기가 된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음식을 쓰레기통 계단에 두고 가버리면 청소 아주머니들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쓰레기 문제는 유명한 관광지나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 장소를 막론하고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사

실이다. 지난 여름 해수욕장에 남겨진 쓰레기 더미는 주이용자인 젊은이들의 공중도덕 인식이 구세대에 비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러한 의식의 부재현상에 대해 홍성미(학생생활상담소)상담사는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라 "결과 중심주의의 사회는 학생들에게 점수 이외의 기본적인 도덕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켰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또 "봉사활동 캠페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식의 부재를 몸소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 응한 한 청소 아주머니는 "학생들이 의식을 조금만 바꾸어 학교를 내 집처럼 여기며 쓰레기는 지정된 휴지통에 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성 거리문화 조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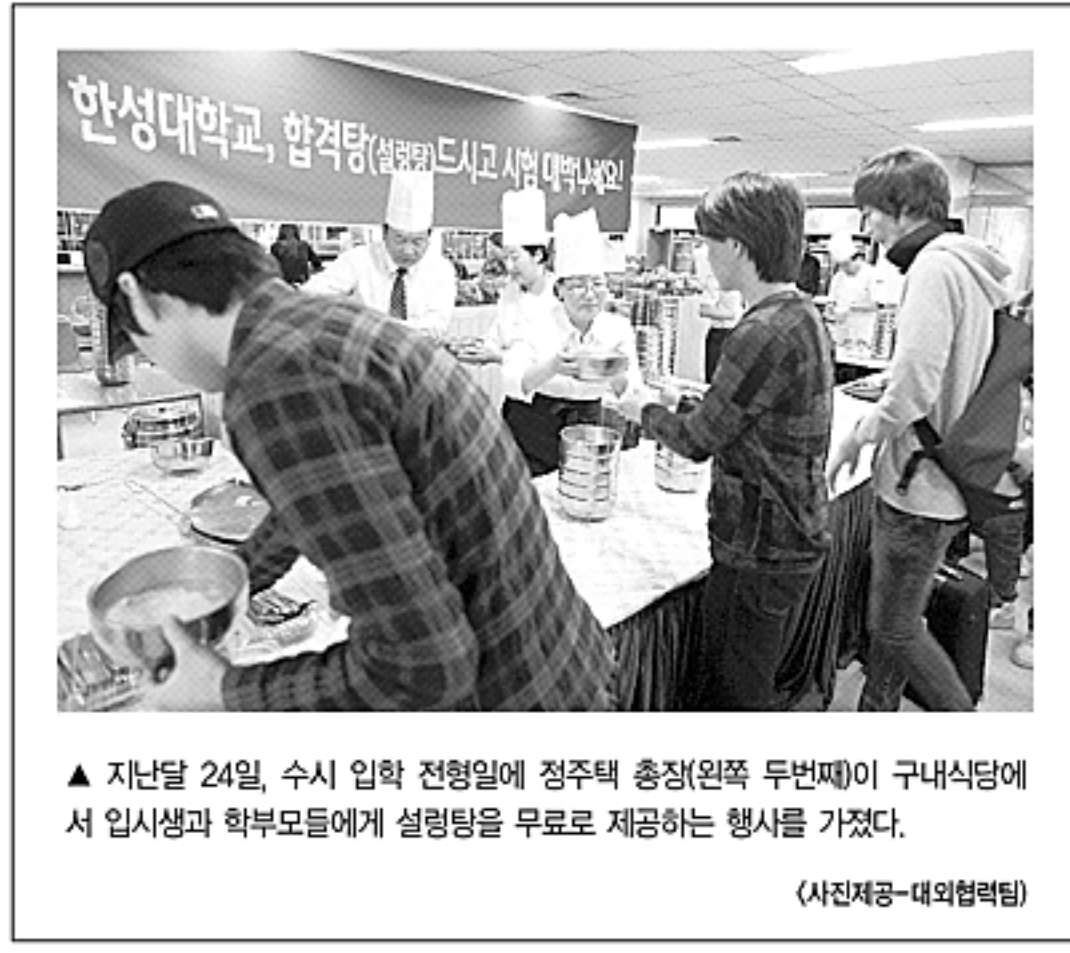
학성의 봉사로 만드는 깨끗한 거리

우리학교는 현재 '이웃과 함께 깨끗한 거리'를 모토로 한성 거리문화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성 거리문화 조성 사업이란 학교 학생 봉사자 100여 명과 시민단체 '장수마을 대안개발 연구소', 기획전략팀이 힘을 모아 우리학교 뒤편에 위치한 장수마을의 낙후 가옥에 벽화를 그려주는 사업이다. 윤구(기획전략팀) 팀원은 "지역내 각 분야의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에게 문화거리로 제공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업에는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려한 디자인보다는 노후화된 벽과 어울리고 마을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것이다. 벽화작업은 마을 분위기를 맞는 은은한색과 서정적 이미지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추후 학교 진입로까지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회화과, 미디어디자인센터, 조형부, 동아리 '유채꽃', 해외봉사단 학생들로 벽화 봉사단을 구성했다. 총 10조로 구성된 벽화봉사단은 지난 10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11월 중순 벽화그리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철 기자 ercast@hansung.ac.kr



▲ 지난달 24일, 수시 입학 전형일에 정주택 총장(왼쪽 두번째)이 구내식당에서 입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제공-대외협력팀)

# 2010년 제5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한성대 재학생들의 사고력 및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한성인 글쓰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내용**

- 대상 : 한성대학교 재학생
- 일시 : 2010년 11월 11일 (목) 오후 1시 30분~3시 30분 (실제 글쓰기 시간 90분)
- 장소 : 낙산관 대강당
- 문제 출제 : 대회 당일 공지
- 평가 기준 : 1) 문제 해결 능력 2) 논리 능력 3) 표현 능력

**신청 및 시상**

- 신청 기간 : 11월 1일 (월) ~ 11월 10일 (수) 오전 9시 - 오후 6시 (단, 11월 10일(수)은 오후 9시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사고와 표현 강좌 교수님께 강의 시간 내 신청  
2)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신청  
3) 사고와 표현 연구실 방문 신청
- 신청자 유의 사항 1) 대회 당일 준비물 : 학생증(신분증), 필기도구  
2) 수업 시간과 대회 시간이 겹칠 경우 협조로 발급 가능  
3) 신청자에게는 대회 당일 소정의 기념품 증정
- 시상 및 수상자 발표  
◆ 최우수상 : 1명 - 상금 50만원

- ◆ 우수 상 : 4명 - 상금 20만원
- ◆ 가 작 : 11명 - 상금 5만원
- ※ 수상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5. 문의 :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지하 1층) 홈페이지 :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메 일 : writing@hansung.ac.kr  
전 화 : 02) 760 - 4354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 낙산의 메아리는 완벽한 커뮤니티인가?

## 타대학, 학생주도 커뮤니티 호응 받는다



커뮤니티한성 > 낙산의메아리 > 자유게시판

### 낙산의 메아리-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의 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담당자가 답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교직원 답글을 원하는 내용은 고객센터, Q&A모음 등을 이용하시고, 구인/분실물 등도 적절한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8077	영어회화나 오직 스테디하실분		2010/10/30	4
28076	선배들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2010/10/30	156
28075	탈구관101호에서 음운론연습책 습득하십니까?		2010/10/30	23
28074	탈구관 지하에서 핑크색 지갑 주우신분?		2010/10/29	24
28072	탈구관 지하에서 빈출 지갑 주우신분?		2010/10/29	30
28071	계절학기 설문조사 (2)		2010/10/29	137
28070	계절학기 관련 문의 (1)		2010/10/29	90
28069	이머폰을 찾습니다		2010/10/28	137
28068	[인문대] 인문대 학생회실 이전 안내 (2)		2010/10/28	159
28067	지식정보학부 학우 중에 겨울계절학기 전공 특...			

- 자유게시판
- 고객의소리
- 학생행사
- 수업정보교환
- 휴일/보통 공지
- 분실물센터
- 마르바이트/구인
- 별곡시각
- 한성앨범
- 취업뉴스
- 건강관련소식
- 공모전

우리대학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한성' 카테고리에는 교내 홈페이지 코너가 있다. 여기에는 총 396개의 홈페이지가 학과, 학생회·동아리, 연구소·부속기관, 교수, 학생, 기타 등 6개 세부 카테고리 나뉘어 개설돼 있다. 그러나 이 중 올해 한 번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사이트가 약 233개로 조사됐다. 교내홈페이지 메뉴의 상당수가 실제 아무도 들르지 않는 유명 홈페이지인 것이다.

많은 단과대학 및 학과는 학교의 홈페이지 메뉴가 아닌 외부 포털 또는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정식(사회과)교수는 "현재 교내홈페이지 메뉴의 회화와 홈페이지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학교 홈페이지는 외부 홈페이지처럼 자유롭게 구성하기에 힘든 점이 많다. 또한 해킹 및 게시판 광고 도배 등의 문제도 있다. 현재 재학생과 졸업생의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되는 웹 아카이브 사이트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대의 다른 학과에서도 "교내홈페이지는 사용하지 않고 싸이월드 클럽만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싸이월드는 자주 접속하니까 자연히 들르지만 학교 홈페이지는 수강신청 등의 목적이 없으면 따로 자주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교내 홈페이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이와 비슷하다. 한유정(매디 2)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개설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강의 자료를 올

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교수님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있다. 하지만 사진 자료를 많이 올리는 교수님의 경우 교내 홈페이지 대신 웹하드를 많이 이용한다.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들르지 않으니 교내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는 일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규빈(멀티 3)학생은 "외부 포털에 학과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다. 컴퓨터 관련 학과이다 보니 이런 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교내 홈페이지나 기타 학교 홈페이지 카테고리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렇게 학과별 교내홈페이지가 즐겨 운영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강의정보 등 학교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고 있을까. 우리 대학의 대표학인 커뮤니티는 낙산의 메아리(이하 낙메다). 실명제로 운영되는 낙메다에는 하루에 몇 십개의 새글이 올라오고 댓글이 달려 학생들의 커뮤니티 독자적인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대의 다른 학과에서도 "교내홈페이지는 사용하지 않고 싸이월드 클럽만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싸이월드는 자주 접속하니까 자연히 들르지만 학교 홈페이지는 수강신청 등의 목적이 없으면 따로 자주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메다는 학생들이 주 이용자라 해도 기본적으로 학교가 관리하는 게시판이라 학생들만의 온전한 커뮤니티라 말하기 힘들다. 김현배(정봉



3)학생은 "자유게시판과 분실물 센터, 아르바이트·구인, 취업뉴스 등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자유게시판에만 우후죽순으로 글이 몰려 있어 불편하다"고 말하며 "불만사항을 얘기하려고 해도 실명제니까 완전히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의견을 요청한 한 여학생도 "불만사항을 낙메다에 올렸는데 학교 측에서 이런 글을 쓰면 안 된다고 압박해 글을 지운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낙메다와 비슷한 성격의 게시판과 학교 홈페이지의 문제를 학생들이 독자적인 사이트 구축으로 해결한 학교들이 있다. 이는 단순히 게시판의 통합 및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학생 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종합적인 생활 포털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대 커뮤니티 'GNU Life', 고려대의 '고파스', 성균관대의 '성대사랑'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은 재학생 졸업생 위주의 회원제로 총학생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 고려대의 커뮤니티 사이트 '고파

스'를 보면 자유로운 공간 역할을 하는 게시판부터 맛집상권정보, 헌책방, 학교주변 주거정보까지 학생들끼리 공유하고 있다. 고파스 운영자 박종천(생명대 00)씨는 "고파스 개설 이전, 고려대 학생들은 교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학생이 올린 글을 학교 측이 삭제하거나 신원을 알아내 전화 거는 등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만의 공간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했다. 이에 2007년 총학생회가 고파스를 개설했다. 홍보와 이벤트 등으로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현재는 '모바일 고파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한 대형 사이트가 됐다. 심지어 강의시간에도 고파스에 접속하는 학생들이 많아 문제가 될 지경이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경희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이 학교와 분리된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정보교환과 상호교류를 하고 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교한학생 생생 정보통

## 중국 여대생의 다이어트 비결

-편집자 주- 한성대신문에서는 이번 학기 동안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내오는 생생한 교환학생 수기를 실습니다. 앞서 두 차례 실린 뉴질랜드의 Unitec 교환학생에 이어 지난호와 이번 443호에는 중국 북경의 화북전력대학 교환학생 수기가 실리며, 444호와 445호에는 미국 뉴욕의 Montclair State University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글이 실립니다.



살이 워낙에 쉽게 찌는 체질이 다 보니, 운동을 하루라도 거를 수 없는 인성이다. 중국에 와서도 부족한 사정이 있을 때 제외하고는 되도록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서는 주로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조깅을 하거나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한다.

중국에 막 도착 한 날, 짐을 풀고 방 정리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낯선 곳에 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침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학교도 한 번 둘러보고 낯선 환경에 친숙해 질 겸 해서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하러 운동장으로 나갔다. 나는 추위가 아직 가지 않은 이 새벽에, 운동장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 이라고 예상하고 나갔으나 전혀 의외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5-6명 정도의 여성들이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왜 놀랄 일인가 반문하는 독자들이 있었지만,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 제외하면 일반인 중에서 겨울 새벽 6시에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는 여성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7시쯤 되니까 점점 사람이 많아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조깅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성들끼리 팀을 만들어 농구나 배구를 하는 경우도 여러 번 봤다. 축구는 정말 운이 좋을 때나 한번 정도 볼 수 있고, 여자 농구와 여자 배구는 비교적 자주 본 편이다. 당연히 뛰어난 수준의 경기는 아니다. 일반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하는 농구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5대5 코트 전체를 이용해서 하는 농구 경기는 남자들도 소화하기 힘든데, 여성이 그렇게 농구를 하고 있는 걸 보니, 문화적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외국인인 많은 학교이다 보니 외국인들의 개방적인 면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한 관념은 우리나라의 여성과는 많이 달라 보였다. 실제로 내가 아는 중국여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다.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가?" 대다수의 중국여학생들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많이 달랐다. 바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 식습관개선,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만, 중국여학생들은 조깅이나 배드민턴, 구기 종목 등의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인지, 중국음식이 기름지고 느끼하기로 유명하고, 여학생들의 식사량이 남학생 못지않게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학생들은 날씬한 체형들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아침마다 운동하는 여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영어 책 낭독이나 영어 교재 청취 등 시간 활용 면에서도 대단해 보였다. 중국 여학생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지금도 다이어트로 고민하고 계실 많은 여학생들에게도 꼭 이걸 알려주고 싶었다.

여러분! 살 빼신다고 무작정 안 드시면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운동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합시다!

김경민(기계 3)

### 한성 정보 통신

## 한성인들의 도서 연체료는 얼마?

Q. 학술정보관에서 받는 연체료는 모두 얼마일까?  
고경선(무용 3) 학생의 질문  
A. 한 달 평균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의 연체료가 모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연체료를 때문에 책을 빌릴 수 없거나 연체자가 된 경험 있을 것이다. 이 때 학술정보관에서는 연체자에게 하루 한 권당 100원씩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료를 외상으로 물리면,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다른 도서를 대출할 수 없다. 장기 연체 시 연체료는 6000원까지 쌓이고, 그 이후엔 도서관을 방문 할 때까지 도서관에 출입이 금지된다. 여기서 드는 현실적인 궁금함, '한 학기에 연체료는 얼마일까?', 학술정보관에서는 학기 중을 기준으로

로 했을 때 한 달 평균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의 연체료가 모인다. 이 연체료는 학교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 돈은 다시 자료 구입에 쓰이거나 학술정보관의 시설을 개선하는데 쓰인다.

김설희(학술정보팀) 팀원은 "연체료를 받는 것은 학교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회전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연체료를 학생들이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다"며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배려한다면 서로 좋은 것이니 가능한 대출 기간 내에 반납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을 전했다.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책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엄선주(지정 1) 학생은 "연체료를 내는 불만을 표출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편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얼마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연체료는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조금만 주의하면 학생 모두가 기분 좋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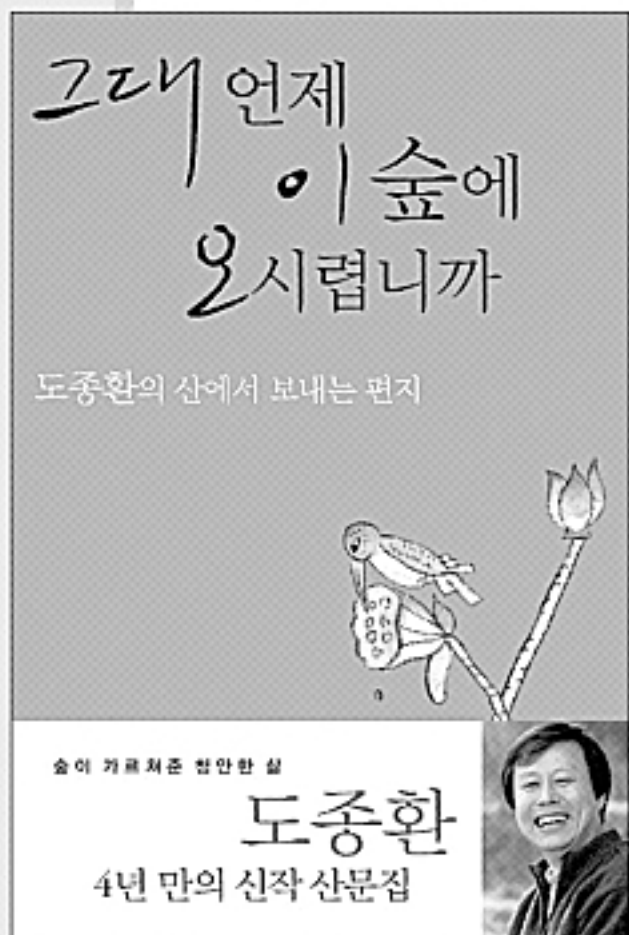
공유희 기자 gong0930@hansung.ac.kr

### 제17회 학술정보관 문화행사

## <접시꽃 당신> 도종환

마음을 움직이는 시, 세상을 움직이는 시

### <저자와의 만남>



- 초청강사 : 도종환
- 저 서 : 그대 언제 이 숲에 오시렵니까
- 일 시 : 2010년 11월 18일(목) 오후 2시~4시
- 장 소 : 한성대학교 미래관 DLC

#### 행사진행

1부 : 독서퀴즈상 시상 (2:00~2:10) 2부 : 저자와의 만남 (2:10~4:00)

- 행운권 추첨을 통해 도서 증정
- 지역주민도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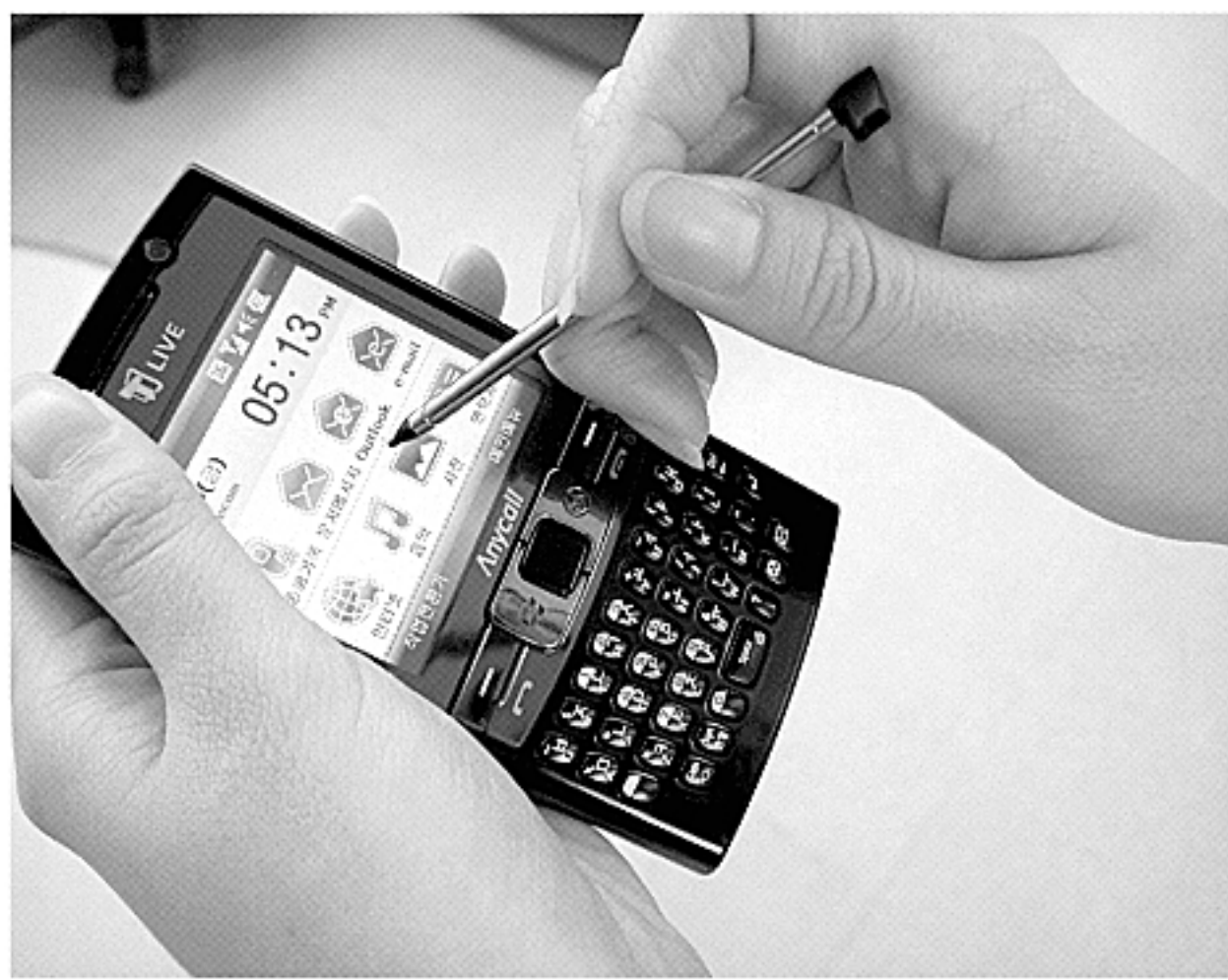
# 디지털 시대의 또 다른 이면, 기억은 어느새 디지털의 지배 아래 있을지도

핸드폰 알람에 잠을 깨고 수신된 문자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아침을 먹으며 핸드폰에 적힌 메모를 확인하고 귀찮게는 mp3를 들으며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 집에 돌아와서도 늦게까지 휴대폰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콘텐츠를 전송하다 잠이 든다. 대학생 이세성 씨(23·남)의 하루일과다. 그는 얼마 전 늘 챙기던 배터리를 챙기지 않아 핸드폰이 꺼진 후부터 머릿속이 새하얗고 가족 이외의 누구의 번호도 기억하지 않는 자신이 무기력해져 당장 편의점으로 가 충전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초창기 휴대폰은 말 그대로 들고다니는 전화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의 휴대폰은 만능기기로 탐바꿈해 TV시청 뿐만 아니라 mp3로 음악을 듣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만능기기가 출시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디지털 기기에 맡아 두게 된다. 디지털은 이미 우리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지배하고 있는 만큼 편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감출 수 없는 부작용도 확인해 드러난다.

테크노 스트레스는 새 기술에 대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정신적인 부담. 새 기술에 따라 사회적 변화에 수반하는 일반적인 마찰을 가리킨다. 스트레스의 종류로는 휴대폰 또는 최신기기에 지나치게 동화되는 '테크노 의존형'과 컴퓨터 및 신 기술에 익숙하지 못해 불안 느끼는 '테크노 불인형'이 있다.

지난 달 말코리야가 넘버링인 8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1.2%인 353명이 최신기기에 지나치게 동화되는 '테크노



▲어느새 우리는 습관적으로 손 안에 있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안심하는 지도 모른다.

의존형'이라고 대답했다. 유형별로는 '휴대폰, pmp, 컴퓨터 등의 기기를 지참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늘 휴대폰을 곁에 두고 문자를 주고받는 홍지혜(23, 대학생)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는 "휴대폰 시계를 체크하는 습관이 있어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원지 급한 문자나 전화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전화번호를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기록해 두기 때문에 외우거나 수첩에 적어놓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등하곳길에 항상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고 있다는 김용빈(메티 1)학생은 "휴대폰을 두고 외출해도 불안하지는 않지만 트위터 놀이에 폭 빠져 내려야할 역을 지나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귀가 심심해 이동 중에 mp3를 듣는다는 윤정진(메티 1)학생은 "갑자기 전화 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 편리함을 위해서 나온 제품들이지만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또 김은주(23, 회사원)씨는 "휴대폰이 없을 때면 연락을 하지 못해 10개정도 외우고 있게 되었다"며 "외워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 기기에 의존한 채, 기억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것을 보면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휴대폰에서 단축버튼을 사용하다 보니 친구의 번호가 기억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단말기가 고장 날 경우, 길을 헤메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친 의존으로 기억력이나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일명 '디지털 치매'라고 부른다.

현대인은 기억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검색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생존교양(김관석 지음, 갤러리에서는 '길의 순서를 기억할 때는, 공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지칭이 될 만한 건물을 선택해 놓고 그것을 보았을 때 우회적인지 좌회적인지 판단해서 그 선택과 판단을 늘여놓으며 하나의 코스를 찾아간다. 그런데 그동안 그 선택과 판단, 계열화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본 적은 있지만 어떻게 찾아가야 할 지 모르겠다'는 상태가 된 것이다."라고 인간의 기억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휴대폰에 무언가를 저장하는 순간부터 기억은 위험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록은 신체 이외의 제3의 장치에 의존하면 할수록 기억력은 감퇴된다. 디지털의 편리함에만 젖어있다면 어느새 인간의 기억은 디지털 기기에 의해 지배될지도 모른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젊음과 열정을 걸고 세상에 한국을 알리다 락킹 3인방을 만나



우리는 꿈을 위해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적당한 일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현실과의 적당한 타협'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젊음과 열정을 담보로 세상에 한국을 알리려 시도하는 3인방이 있다.

이들은 한국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모여 '락킹'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Republic of Korea'의 약자 'Rok'에 'ing'를 붙인 것으로 '즐겁고 신선한 오늘의 한국'이라는 뜻이다. 빈사라(24)씨는 오랜 유학생활 중에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굉장히 무지하고 심지어는 오해를 하고 있음을 실감하고는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외국에 나가 있으면 한국에 대한 애정함이 커진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몸소 느끼며 애국심이 생긴다"며 "한국인들은 한국의 우수성을 모르고 있어 대한민국의 퀄리티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던 스타일리스트 박상아(26)씨, 번역방송작가였던 최정윤(25)씨도 함께해 같은 꿈을 꾸게 된다.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세계에 알릴 대한민국을의 모습을 담은 '잡지의 창간'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펴낸 락킹의 창간호는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김치나 한복 등이 담겨있지 않다. 빈사라씨는 "현재진행형의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진부하고 눈길을 끌지 못하는 한국잡지가 아니라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한국을 라이프스타일,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현재의 한국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잡지가 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말했다.

2010년 여름에 창간호가 발행된 이후 그녀들의 활약상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현재는 미국 우수대학의 카페테리아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하지만 그녀들의 꿈은 여기서도 끝이 아니다. 그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단순한 외국잡지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즐겨읽는 친숙한 잡지가 되고 싶다. 우리의 잡지가 미국, 영국 등의 주류사회에서 편하게 읽힌다면 이후 한국을 중심으로 해외의 문화현상을 함께 다룸으로서 글로벌문화잡지로 나아가고 싶다"며 밝은 웃음을 지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통계로 본 한국사회

## 대학생 73%, 결혼은 선택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협회 소속 청소년보건복지봉사단 Top-Us(이하 Top-U)를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육아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전국 44개 학교 대학생 1천813명(남 818명, 여 995명, 기타 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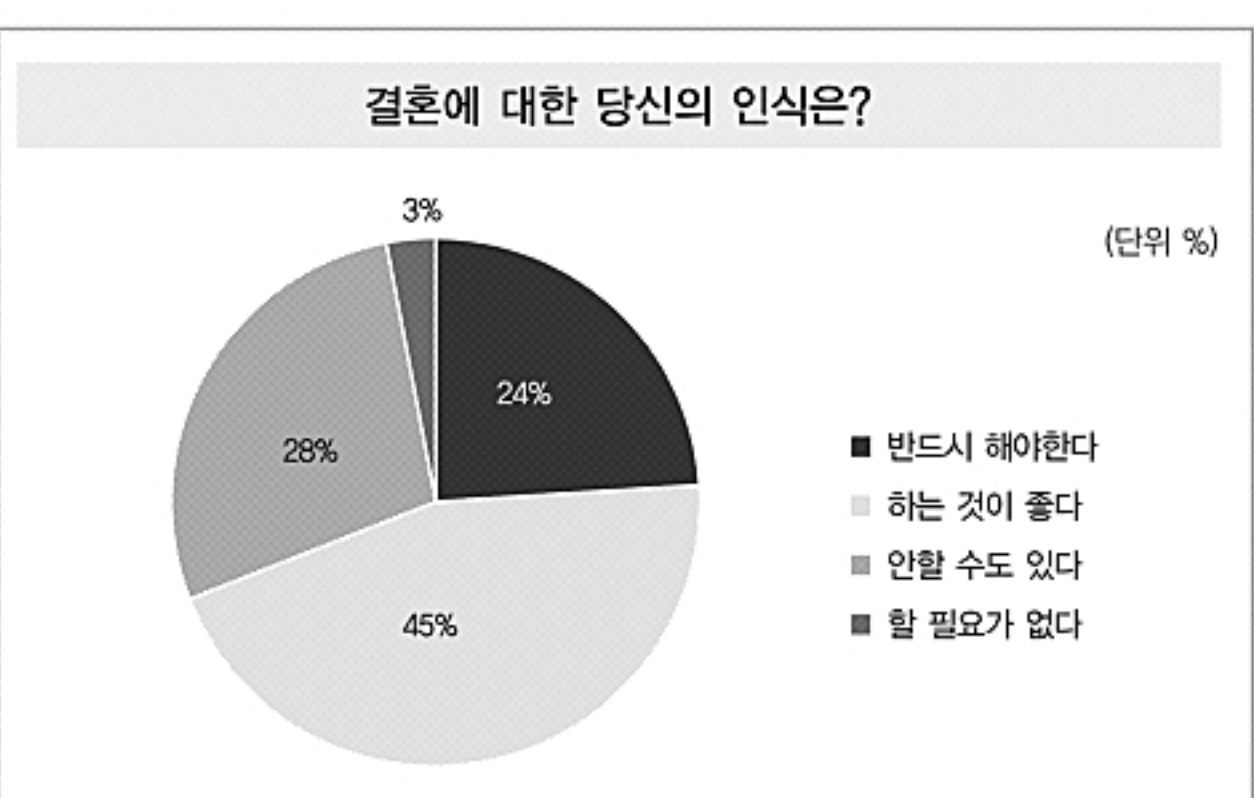
설문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하는 것이 좋다' 45%, '안 할 수도 있다' 28%로 응답해 73%의 학생들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남학생(75%)이 여학생(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67%의 학생들이 본인들이 직접 자녀를 양육한다고 응답했으며, 18.8%의 학생들은 보육시설에 양육을 위탁할 것으로 답했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여학생의 경우는 36.7%의 학생들만이 본인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8.3%로 나타나 전국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 밖에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42%의 학생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주다미(메디 3)학생은 "예전에는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했지만 능력적으로 안정되면 독신생활도 괜찮을 것 같다"며 "요즘 보육시설이 잘되어 있고 양립할 경우라면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권희선(산공 1)학생은 "일과 양립하더라도 최대한 내가 키울 생각이야"며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홍성미(학생생활상담소상담사)는 "일반적인 사회인식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가 진화해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기회균등을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현인을 분석했다. 그는 또 "남성과 똑같이 경쟁하고 노력이 시간을 투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보육시



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성미 상담사는 혼전성관계의 응답에 대해서 "여권신장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피

임도구의 발달로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한성대학교 도서관 전자도서관 Quiz Event

- 1. 이벤트 안내**
  - 내용 : 독서퀴즈
  - 대상 : 한성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 상품 : 아이팟 터치(4세대 8G) 3대
- 2. 이벤트 응모방법**
  - 접속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기간 : 2010. 10. 25(월)~11. 7(일)
- 3. 추첨/시상**
  - 일시 : 2010. 11. 18(목) 오후 2~4시(저자와의 만남 종료 후 추첨)
  - 장소 : 미래관 DLC
  - 정답자에게는 11월 11~12일 사이에 '문자' 개별통보하며, 통보를 받고 18일(목) 오후 2~4시 저자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시상함
- 4. 문의**
  - 학술정보관 02-760-4283, 5992

# 상상 그 이상의 현실, 증강현실

의료,군사,산업,교육,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 널리 사용돼

소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주인공 해리포터가 꼭 빠져있던 소망의 거울을 기억하는가. 실제 소망의 거울 앞에 해리포터가 혼자 앉아 있지만 거울 속엔 죽은 부모님이 나타난다. 눈앞에 펼쳐진 거울에 현실과 가상 물체가 함께 보인다. 이는 증강현실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월드컵 시즌, TV화면 속 푸른 잔디구장에 실제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기, 점수, 선수 정보 등은 가장 흔한 증강현실의 예다. 요즘엔 증강현실을 활용한 광고가 많이 등장하며 일반인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Calvin Klein X'의 런칭에 맞춰 QR코드를 응용한 증강현실 광고 캠페인을 활용한 켈빈 클라인 언더웨어가 그 예다. 광고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델이 등장하는 동영상 광고를 볼 수 있다.



영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가상현실 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복원을 통해 앞서 수천년 전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느낄 수 있다. 지난 2000년 9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 행사장의 사이버영상관에선 신라시대의 수도였던 서라벌 시가지를 첨단 디지털 가상현실로 재현한 영상물을 상영하기도 했다. 초대형 스크린에 신라 황룡사가 복원된 모습이 실제로 볼 수 없는 신라시대를 가상공간에서 재현한 것이다. 국내에는 이미 무령왕릉, 고구려 벽화, 금산사, 경복궁 등의 문화재가 디지털로 복원됐다. 각 대학 및 연구원에서 증강현실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다. 홍익대학교는 블루 폼 위에 사용자나 디자이너가 원하는 색상, 텍스처, UI(User Interface)등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세종대학교에선 모델링과 교육, 게임분야에서 혼합현실과 상호작용을 결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우리 대학도 '증강현실 다중인식 마커 제어 애니메이션', '증강현실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디지털 건축문화유산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의 논문을 발표하며 증강현실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홍(멀티미디어공학과)교수는 "증강현실은 기술적으로 이미 완벽해 가깝게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 응용되는지에 달려있는 기술이다.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에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므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전했다.

이상이 기자 sangmi@hansung.ac.kr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현실세계에 가상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도 한다. 증강현실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보잉의 톰 코델(Tom Caudell)이 항공기 전선 조립과정의 가상 이미지를 실제 화면에 중첩시켜 설명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증강현실은 의료, 군사, 산업, 교육,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군사 및 여행자를 위한 GPS침을 장착한 헤드셋을 개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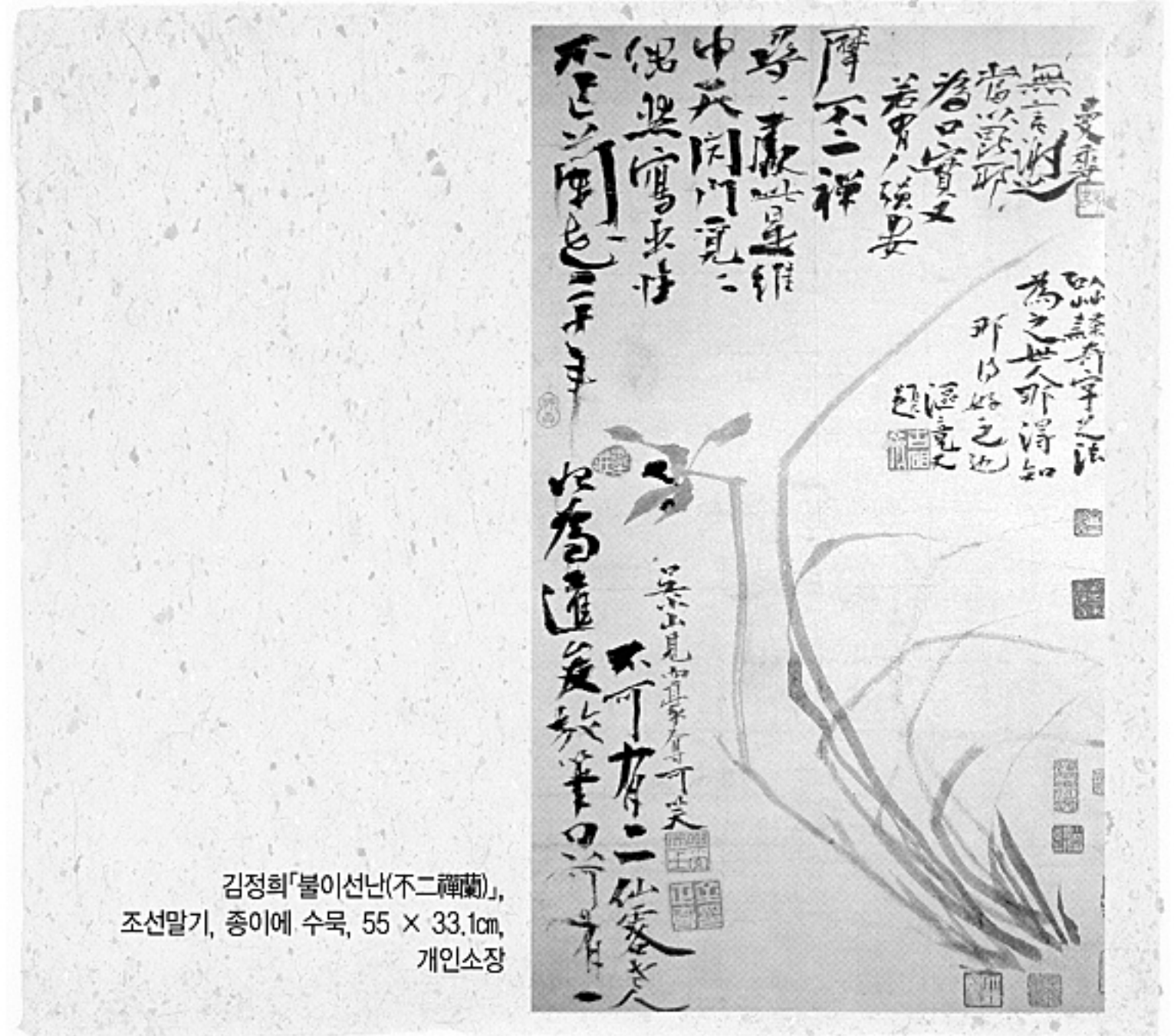
의학계에서는 복강경 수술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험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MRI, CT, 초음파 등의 센서를 이용해 환자에 대한 3차원 데이터를 수집, 환자의 현바에 수집된 정보를 중첩해 수술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독일의 뮌헨 기술 대학의 Gudrun Klinker 교수는 BMW와 공동으로 자동차의 문을 조립하기 위한 증강현실 기반의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다. BMW, 르노와 같은 자동차 제조사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의 설계 과정에서 1대 1 모형을 실제로 제작하지 않고도 구조, 색상 및 위치 등을 바꿔가며 디자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기업 Metaio는 가상 옷 입기(Virtual Fitting)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들이 직접 옷을 입거나 화장해보지 않아도 자신과 어울리는지 터치스크린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증강현실에 사용할 수 있는 GIS 및 GPS와 다른 정보들을 이용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일본 사카이카메라는 카메라를 거리에 비추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트위터에 최근 올린 글들이 발췌적으로 나온다. 상점의 문어는 시각, 음식 점 메뉴 등의 정보를 활용 가능하나 주위 사람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실시간으로 보게 돼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단점도 있다.

디지털 복원기술도 교육 및 문화 분야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고대 문화를 복원해

## 동양화 스토리

# 추사(秋史)의 화혼 '불이선난도(不二禪蘭圖)'



김정희「불이선난도(不二禪蘭圖)」, 조선말기, 종이에 수묵, 55 x 33.1cm, 개인소장

조선말기(약1850-1910)는 근대로 불려질 수 있는 시기로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조선 후기(약 1700-약 1850)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안동 김씨 세도정치와 동학운동 등의 대내적인 정치적 불안과, 양요를 비롯한 열강들의 각축에 따른 대외적인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정세는 이 시대 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글씨는 굵고 가는 획들이 서로 엮여질 몹시 거칠면서도 힘이 있고, 난초의 굴곡진 모습이 마치 그의 글씨를 보는 듯하다. 이러한 추사의 난 그림은 사실보다 품격을 위주로 하며 남종화의 선미(禪味)와 그 맥락이 닿는다 하겠다. 이 '불이선난도'는 그의 지론(持論)인 예서와 견주어 '초예기자지법(草隸奇字之法)'으로 여기는 작품이다. 그의 난을 치는 격조 높은 문기를 보여주는 명작이라 하겠다.

김정희는 추사체라 불려지는 독창적인 서체를 창조하였고 또 화론에 밝았으며 금석학과 고증학 등에 훌륭한 업적을 쌓았고 당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던 전형적인 사대부였다. 그의 추사체 서예는 한·육조의 초·예서체의 오의(奧義)를 규명할 위에, 오랜 세월 동안 길고 닦아 전무후무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것이다. 그는 서예뿐만 아니라 문인화 특히 사난(寫蘭)에는 그의 화론(蘭說)과 함께 이른바 추사난의 독보적 격조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불이선난도', 일명 '부작난도'는 난초에 대한 시각적 재현이라기보다는 서예적 필묵의 운용이 만들어진 독특한 묵난도(墨蘭圖)이다. '불이선난도'의 난초는 어떤 대상적 속성을 묘사하거나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림뿐만 아니라 제법(題跋)의 글씨도 통상적인 글씨의 자형과 필법을 거의 벗어났다.

이 꾸밈없는 난초 그림에 대한 학자들의 대표적 수식어는 파격, 일탈, 추상, 초월적이라는 단어이다.

'부작난도'는 바람을 받은 듯 오른쪽 구석에서부터 꿈틀대며 왼쪽에 솟아 굽어진 난초를 화면의 중앙에 그려 놓고 그 주변의 여백에 제찬(題贊)을 써넣은 그림으로 김정희의 전형적인 난 그림과 글씨체를 동시에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작품이다.??

글씨는 굵고 가는 획들이 서로 엮여질 몹시 거칠면서도 힘이 있고, 난초의 굴곡진 모습이 마치 그의 글씨를 보는 듯하다. 이러한 추사의 난 그림은 사실보다 품격을 위주로 하며 남종화의 선미(禪味)와 그 맥락이 닿는다 하겠다. 이 '불이선난도'는 그의 지론(持論)인 예서와 견주어 '초예기자지법(草隸奇字之法)'으로 여기는 작품이다. 그의 난을 치는 격조 높은 문기를 보여주는 명작이라 하겠다.

문인화가 추구하는 것은 고도의 품격과 격조를 지닌 정신세계로서 문인화를 사의로 구분하는 것은 뜻의 표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책을 독서하고 그 내용의 기상이 그림에 풍기는 것을 말하는데, 즉 읽은 책과 쌓은 수련량의 비례에 의해서 기(氣)와 향(香)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문자향 서권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고 자동차의 왕 포드는 말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마음을 비우고 초연한 마음과 외연한 자세로 묵묵히 난을 치고, 대나무를 그리는 것이 요즘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근우 / 중앙대 강사

## 학술서평

# '여기'에서 '보이는 대로' 증강현실

'스마트폰과 웹의 혁명, 증강현실의 모든 것/니케이 커뮤니케이션 편집부 지음/멘토스



기술이란 현실세계에 디지털 정보를 덧씌워 사용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즉 정보를 검색어로 찾던 인터넷 검색을 뛰어넘어 '여기'라는 장소에서 '보이는 대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증강현실 기술을 단순하게 신기하고 편리한 기술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의 전문가 13인의 강의 내용을 모아서 증강현실 기술의 정확한 정의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개발상까지 꼼꼼하게 보여준다.

책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재해 대책 시스템 연구이다. 이 재해 대책 시스템 연구의 하나로 소방 활동이 곤란한 지하 공간 등에서 소방관에게 활동 지원 정보를 증강현실로 제공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증강현실 기술로 소방관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도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중앙관리부는 소방관이 보는 현장을 바로 보아서 정확한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 또 다른 활용 연구로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대피 경로 유도이다. 이것은 연기 등에 의해 시야가 매우 나쁜 상황에서

도 증강현실을 사용해 피난 경로가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지하상가에 연기가 들어차 있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출구는 이쪽이다'와 같은 정보가 휴대용 기기를 통해 표시되는 것이다. 이처럼 증강현실 기술은 단순하게 책 가격이나 거리정보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증강현실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독자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상원 기자 ecaesi@hansung.ac.kr

하늘에 스마트폰을 비추면 날씨 정보가 나오고 거리를 비추면 거리정보가 나온다. 책을 비추면 책의 가격과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이 요즘 지팡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해답은 증강현실 기술에 있다. 증강현실

## 제3회 한성대 영상제가 개최됩니다

### (구. 한성대 동영상문화제)

**일시** : 2010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 미래관 지하D.L.C

**주최** :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주제** : 자유공모

**대상** : 한성대 재(휴)학생

**작품형식** :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UCC등

**런닝타임** : 10분 내외

**출품포맷** : DVD 혹은 avi, mpeg, wmv등의 파일

**출품장소** : 우촌관 509호 교양학부 사무실

**출품마감** : 2010년 11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서류** :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후 작품과 함께 제출

\*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집니다.

재능있는 한성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설

기술혁신과 꿈

얼마 전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경제세미나를 흥미롭게 청취하였다. 내용인 즉 현재를 대변하는 문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기술혁신(Innovation)이 일어나고 있다"이다. 현 시대의 10년 동안의 변화는 17세기의 100년 동안의 변화 같다고 하였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년 이라면 우리는 17세기의 800년 동안의 변화를 우리 일생을 통해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 혁신이 세계 도처에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다 보니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경제이론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이였다.

맥을 같이하여 뉴 밀레니엄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시중 일간지에서 특별기획으로 금세기 최근 10년간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그 내용은 즉 지난 10년간 기술 분야의 주목할 만한 발전으로 통제를 벗어난 기술들의 등장을 다루었다.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인터넷을 "인간이 발명해 놓고 이해하지 못하는 최초의 발명품"이라고 규명하였으며 너무 많은 정보 과잉은 2000년대 이르러 '폭력적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통제 불능의 신기술로 대표적인 것이 GMO(유전자 변형) 식품이며 2008년 GMO 식품 경각 국가는 25개국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유전자 기술의 발달은 그 사용 영역의 확대를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지난 10년간 '빛의 속도'로 발전했다고 이 신문은 전한다. 'NELL'(멈추지 않는 언어 학습기, Never-Ending Language Leamer)이란 이름의 이 컴퓨터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다니며 언어지식을 확장하며 지식을 축적한다고 한다. 더 이상 더미네

이터나 매트릭스 같은 이야기가 영화상에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는 과학이 뇌, 나노, 양자역학, 우주 등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된다고 전한다. 뇌 과학의 발달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뇌 반응들이 측정되어져 상업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생각이나 반응에 따라 뇌의 특정 부위에 피가 몰린다는 현상을 측정하여 기업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열고 들어가 자신도 모르는 그 속살을 낚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의 세계로 발전은 곧 인간이 필요한 물질들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 시대는 전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서 생존해 나가는 삶의 공동체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기술 혁신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들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혼란스럽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신기술들의 불모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이나믹한 변화의 시대에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취업전선에 나와 있다. 발등의 불이 급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당장 앞에 있는 문제보다 눈을 들어 멀리 그리고 넓게 볼 것을 요구하고 싶다. 요사이 장안에 화제가 된 슈퍼스타 K2의 주인공 허각의 스토리를 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결과의 모습을 본다.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꿈을 세우고 자신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해온 것이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

교직원 인터뷰

학생들의 복지와 장학금 지원에 힘쓰는 조력자

우리 학교엔 원활한 학교 행정을 위해 힘쓰는 교직원들이 있다. 이에 그들을 엿볼 기회가 되는 지면을 구성했다. 이번 호엔 학생지원팀의 전민우 팀원을 만났다.

장학금은 예비 대학생들이 학교를 지원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장학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전민우(학생지원팀) 팀원은 학생회 활동 지원, 국·내외 봉사활동, 교내·외 장학, 후생복지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지원팀에서 올해로 6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장학 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다.

그는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 "복지 장학금의 경우 신청 사유를 보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다. 신청 사유를 쓰는 학생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는데 그러한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힘들 때도 있지만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학교의 대표적 장학제도인 디지털멘토 장학금에 대해 "이 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개인역량이 향상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디지털멘토 장학금이란 성적만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선발했던 기존의 장학제도에 벗어나 사회봉사, 외국어점수, 기타자격증 등의 취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대학만의 특징을 살린 장학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는 또 새로 신설된 장학제도에 대한 특징도 설명했다. "경력개발 장학금은 올해 1학기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성적과 봉사활동, 혹은 외국어 점수가 향상된 학생에 한하여 마일리지로 부여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제도인 한성수능우수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수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입학 시 취득하는 과목의 등급이 모두 2등급 이내일 경우 4학기동안의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학생들이 장학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담당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성복지(1등급) 장학제도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대출 이자액을 제공하는 장학금이 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장학금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물론 홍보가 잘 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학교의 장학 제도들에 대해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학생들에게 자율적 태도와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이경록 기자 lkr88@hansung.ac.kr



전민우 팀원 학생지원팀

의화정



신영현 교수 (영어교육연구팀)

바벨탑, 영어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는 원래 하나였다. 그러나 시냇이라는 병원에 살던 인류가 큰 성읍과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고, 온 땅에 흠어짐을 면하려는 야심찬 시도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신이 저주를 내리면서 인간의 언어가 나뉘게 되었다고 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창세기 11장 6절-8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다. 그렇다면 나를 독살한 기독교 신자를 자처하는 필자가 외국인 언어를 가르치면서 바벨탑을 하는 것도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심판 덕분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의 분열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한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신이 최초

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다음의 명령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기독교에서는 이를 '문화명령'이라고 부른다. 즉 온 땅에 흠어져서 땅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이 원래 신이 주신 사명 이었는데, 바벨탑을 건설한 인류는 이를 정면으로 거역해서 자기들만의 문화, 지들끼리의 세계를 구축하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심판하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온 땅에 흠으신 것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이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및 이로 인한 더 풍성한 삶의 향유로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지구촌의 인류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삶은 신이 주신 문화사명을 좇아 살아가는 의미 있는 소명의 삶이 된다.

미국 유수의 신학대학교인 칼빈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 바버라 카빌에 따르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국땅에서 '좋은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좋은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영어를 배운다. 과연 그러하다. 영어는 경쟁(competition)이 아니라 소통(communication)의 수단이다. 영어는 남 '보다' 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다. 혹시 세련된 발음에 우월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피부색이 다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내보인다면, 이는 갓 쓰고 베타이 매는 격이다.

남들도 나만큼, 나처럼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태도를 우리는 영어 제국주의라 부른다. 또한 외국인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거나, 반대로 원어민보다 더 원어인 티를 내려는 태도를 일컬어 영어 사대주의라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말 대신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는 주장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냥 풍수라고 하면 된다. 외국어 습득의 본질이 문화적 다양성과 소통임을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 실용주의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소통'이다. 세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한 영어! 잉글리쉬라운지(미래관 지하) 소재는 그 좋은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늘은 엔지 라운지를 지키고 있을 손과 조엘라운지 전담 원어민 교수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은 날이다.

독자투고-책 리뷰

스티브잡스와 같은 발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스티브잡스의 프레젠테이션2』(그는 어떻게 청중을 설득하는가)/김경태 저

한용덕 (지정 3)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프레젠테이션은 지식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고비용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 바로 『스티브잡스의 프레젠테이션2』라는 책이다. 내가 처음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교실의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섰던 때가 기억난다. 강단 앞에 섰을 때의 긴장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요즘도 매년 같게 나타난다.

책에 소개된 항상 준비하는 사람, 스티브잡스는 분명 최고의 발표자이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가지는 않는다. 그는 청중의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간다. 이는 최고의 방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가 보듯이 간단한 방법인가? 아니다. 스티브잡스는 프레젠테이션 하나에도 전략과 치밀한 계산과 가지고 있다. 이를 사용해 청중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청중의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삼아왔던 발표자 중심의 이기적인 프레젠테

이션과는 처음부터 다른 뿌리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핵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기대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발표자라는 고독한 존재가 고독한 존재로 남지 않고, 군계일학의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증과 연습, 분석을 통해서 청중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책은 스티브잡스가 이를 당연하게도 모두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기술은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더욱 즐겁고 매혹적이다.

비록 방법은 간단해 보일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두 요소를 빠뜨리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많은 준비와 연습이다. 이 책은 확실히 프레젠테이션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감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오게 된다. 현재 3학년 2학기, 그리고 앞으로 한 학기 후엔 나가기 될 교생실습, 그리고 멀지 않은 졸업 후 내가 상임정보 교사가 되어서 직접 내가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주안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줄댓글

시라노 ○○조작단?

이번 한줄댓글 주제는 '조언을 받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코치를 받아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자유로운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영주 (한국어문1)

☞ 하루하루 입을 옷 누가 코치해줬으면 좋겠어.

권경련 (한국어문 4)

☞ 시험문제 뭐가 나올지 꼭꼭 코치해 줬으면 좋겠다.

김준기 (경제 3)

☞ 다이어트 식단을 짠거 꼭 코치가 필요해!

'한줄댓글' 관련 게시물은 '낙신의 메아리'에 매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년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43호 당첨자는 김영주(한국어문 1)학생입니다.

2010년도 시간(동미참/향기 및 1, 2차)보충훈련 참석 안내 공지

1. 일시 : 2010년 11월 22일(월) ~ 26(금), 일일 훈련시간 09:00~18:00(8H)
2. 장소 : 덕릉예비군교장(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당고개)
3. 대상 : 한성대학(원)교 학생예비군 중 1~ 6년차 훈련 불참 및 미 이수자  
\* 개인별 훈련 일자 및 시간 : 첨부파일 참조(성명 및 군번으로 확인)
4. 행정사항
  - 신분증 필히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규정된 예비군복장 착용(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및 바늘, 고무링)
  - 09:00까지 입소, 지각할(09:30 이전 입소자)시 추가 교육 1시간
  - 09:30 이후 도착 시 입소 불가하며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 됨
  - 문의전화 : 02-760-4176, 010-5075-6553(예비군대대 : 우촌관 208호) / 02-934-8764~5(덕릉예비군훈련장)

5. 기타

- 대중교통 이용 시 : "전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33번, 33-1번, 10-5 번 시내버스 승차 당고개 덕릉예비군훈련장 하차 / 입소
- 자가 차량 이용 시 : 삼선교 →미이리교개 →드림랜드 →당고개역 →덕릉예비군훈련장
- 훈련 간 중식용 식권과 학교 수업출석 인정 등에 필요할 경우 개인별 학교예비군대대(우촌관 608호, 전화 02-760-4176)에 방문하여 중식 식권 및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훈련에 참가 바랍니다.
- 식권 미 수령자는 개인이 식비를 부담해야하고 훈련 무단 불참 시 불이익을 받으며 개인별 훈련일자 및 시간은 한성공지 첨부파일에 성명 및 군번으로 확인하여 참석바람.
- 단 미처 전입신고를 미 실시한 대학(원)생 예비군대원은 한성대학교 예비군대대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전입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취업기획 인터뷰

최해주(패션디자인학과) 예술대학장 인터뷰

적성을 살리는 목표를 정해 열정적으로 도전하라

예술인의 낭만과 그 반대편에 있는 현실적인 취업 문제에 예술학도들은 어떤 식의 균형을 잡아야 할까. 최해주(패션디자인학과) 예술대학장과 인터뷰 끝에 맺은 결론은 대학 생활의 낭만을 만끽하며 열정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예술대의 취업 촉진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예대취업 아카데미와 취업멘토링, 겨울방학 워크샵이다. 예대취업 아카데미는 예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과별 특강으로 구성된 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서는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인 부시장을 초청해 디자인 공무원 취업정보와 서울시 디자인 경력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취업 멘토링과 겨울 방학 워크샵은 각 과

별로 진행되는 사항이다. 취업 멘토링은 4학년 학생이 졸업생 선배를 멘토로 진로와 취업에 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이는 취업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겨울방학 워크샵은 포토샵이나 패턴, 일러스트레이션 등 각 과에서 취업에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방학에 보충할 기회를 갖는 취지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해주 예술대학장은 '목표를 높게 잡고 이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할 것'을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높은 목표란 '세계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예술대학 출신의 선배 몇 명을 예로 들었다. 삼성SDI(삼성패션디자인센터)를 수상하고 영국을 무대로 주목받는 행보로 펼쳐고 있는 듀오 패션디자이너 스

티브앤요니(Steve & Yoni)나 무용학과 출신으로 뉴욕에서 핸드백 브랜드 'Sang-a'를 론칭한 디자이너 임상이, 돌체&가버나 슈즈 디렉터로 일하는 석용배(제품디자인 99)졸업생 등이다.

그는 적성을 찾고 이를 살려 꽃피우게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와 공모전을 추천했다. 최해주 학장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말고 전공과 관련한 일을 시작해보면 자신의 적성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공모전은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볼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대학생활을 만끽할 것을 강조했다. "대학생활을 취업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폭넓은 지식과 낭만

을 기르자. 이 때 길러진 풍부한 감성은 미래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도서관과 낙산을 놀이터 삼아 스포츠가 물을 흡수하듯 대학생활을 즐기라"고 강조했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윤지영(사학 92)졸업생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신의 이름과도 같다고 여기는 이가 있다. 올해로 교직 생활 11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 윤지영 졸업생을 만나고 왔다. 그는 현재 경신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국사 교사이다.

윤지영 졸업생은 뚜렷한 목표의식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회에 들어가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매년 방학 때면 선배들, 동기들과 함께 비정기 답사와 농촌봉사활동도 다녔다. 군대를 다녀와 복학한 뒤에도, 사회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소모임인 사회부에 들어가, '흐름지'라는 잡지를 만들었다. 당시 사회에 관심이 많았기에 학생운동 활동도 하며, 교직이수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많은 활동을 하며 현실적으로 공부를 병행할 수 있을까. 이에 그는 "학생회나 학

내외 여러 활동들은 시간을 뺏기는 것이 절대 아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기에 못하는 말은 단순한 핑계거리 일뿐, 공부할 마음만 충분하다면 거뜬히 병행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훗날 사회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값진 경험들이다"라고 힘주어 얘기했다.

또한 그는 "대학생이라면 한번쯤은 슬럼프를 겪는다. 나 또한 이를 느낀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다. 나는 후배들이 자기 자신을 바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슬럼프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지영 졸업생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충분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안전성 또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이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한 학생의 성장과정 중간에 있고, 나중에 그 학생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만나보려 한다는 점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면서 고맙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비록 시대가 변하여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지만, 대학 생활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특히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보냈으면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보현 기자 annyung17@hansung.ac.kr

적극적인 자가 기회를 잡는다

박준영(부동산 03) 졸업생



하게 됐다"며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턴십이나 신입사원 지원서를 보면 지원하는 사람들의 스펙이 모두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토익점수를 높이고, 자격증을 하나 더 따는 것 보다는 실무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업은 그 회사에 나를 파는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여 좀 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고쳐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준영 졸업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후배들에게 "기업은 지금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해야 한다"며 "이 분야에 몸이 있으면 어학연수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학시절에 해 놓지 못한 것들을 대학 생활을 통해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모의 면접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이력서를 쓰는 방법을 배우면서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해나갔다. 학점관리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니 잘

곽소영 기자 ksyoun@hansung.ac.kr

폰트 디자인은 '글자를 파는 석공'

최성우(시각영상 98)졸업생



요즘 인터넷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폰트들이 눈에 띈다. 최성우(시각영상 98)졸업생은 이런 폰트를 만드는 디자이너다. 그는 (주)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 폰트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다. 개발에 참여한 대표 작업으로 도로안내표지만, 네이버 나눔고딕, 맑은 고딕 폰트 등이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그는 "범위 넓고 모든 것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 것"을 조언했다. 디자이너로서 감각을 키워야 하는데 이는 경험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말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교육이론 디자인으로서 고경관비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자신이 경험한 건 아주 오래 남는다"며 다양한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미리 준비하지 못해 아쉬운 것은 다름 아닌 외국어다. "디자이너가 무슨 외국어나고 흔히 생각하지만 의외로 디자인

업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 디자이너와 접촉할 일이 많다"며 "토익·토플은 물론 회화까지 하면 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폰트디자이너의 일을 글자를 파는 '석공'에 비유한다. 석공처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딱딱한 돌을 묵묵하게 파는 장인정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하나의 한글 폰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11,172개의 글자를 디자인해야 한다. 영어와 한자 모두 포함하면 3만자가 넘어 간다. 그뿐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작업기간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다소 느린 것은 힘든 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서체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고 사랑받는 것을 보면 디자이너로서 큰 만족감을 느낀다. 힘든 점도 있지만 그런 만족감을 생각하면 폰트 디자이너의 길은 좋은 선택이다"고 말했다.

고학력 스펙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요즘 세상에서는 학력이 취업에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름 없는 대학의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만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다. 도리어 고학력 취업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회사에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이다"며 "자신 있게 도전할 것을 권했다. 또한 '학교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자신이 교수, 도서관 자료, 취업관련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철 기자 ercast@hansung.ac.kr

'자신만의 색다른 경험, 취업의 열쇠 될 것'

윤성수(산공 03) 졸업생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가장 큰 소망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것이 아닐까. 윤성수(산공 03)졸업생은 현재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외국을 나가보니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삼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며 "그만큼 영향력이 큰 기업에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입사 계기"라고 말했다. 그의 업무는 영영의 수주 물량과 구매의 자체 물량, 제조운영의 생산 물량 등을 고려한 AMOLED 생산 라인에 생산 계획과 컨트롤이다. 그는 취업 전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고 싶는지 결정하고 취직전선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공을 살린 업무는 만족스럽지만, 대학시절 적성에 맞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은 아쉽다. 나의 경우 막연히 삼성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만 해서 막상 취업하고 부서 배치면담을 할 때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생각해 보지 않아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펙은 더 이상 취업준비생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입사해보니 토익과 학점만 높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졸업을 확정시절에 점수에만 너무 연연하면서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그는 덧붙여 "취직하고 나면 여행할 시간도 혼자 보낼 시간도 없어진다"며

공유화 기자 gong0930@hansung.ac.kr

기자수첩

방구석 어딘가에서 넘겨보던 일기장을 추억하다

기자는 얼마 전 구글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를 검색하고는 깜짝 놀랐다. 트위터와 네이버 블로그, 외국의 블로그에 쓴 글이 모조리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릴 때 방구석 어딘가에서 필름카메라의 인화된 사진, 삐뚤빼뚤 글씨가 적힌 일기장을 발견하고는 한참을 앉아서 넘겨보던 기억이 있다. 인화된 빛바랜 한 장의 사진은 추억을 되새기게 하고, 수십년 전의 추억들은 내 머릿속에서 연상되어 서로 연결고리를 지어 당시를 회상해 보게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의 기억과 추억은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기록되고 있다. 게다가 기억물의 형태도 다양하다. 소소한 일기와 과제부터 시작해 3년 전 참가했던 콩콩의 동영상까지 다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디지털의 기록은 삭제도 쉽고 소소하게 작성하기도 쉽다는 점이 편리한 반면 클릭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다.

언젠가는 기록의 발달로 음성파일 뿐만 아니라 영상도 정확하게 스캔되어 나의 모든 생활은 검색 가능한 텍스트 파일로 저장될 지도 모른다. 현재의 우리는 완전한 라이프로그(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웹 사이트에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로 싸이월드나 트위터 등이 생활화되면서 자신의 기

억을 전자화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댓글수정이나 글 삭제 등의 행동을 신중하게 선택해 기록하거나 발자국을 없애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러한 시도 끝에 현재 나의 미니홈피에 남아있는 자료는 잘 나온 사진들과 좋은 기억,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이 대부분이다. 몇 번의 클릭으로 기억을 조종하고 지워진 안 좋은 기억을 다시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한 편으로 완전히 잊은 기억이 저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방 한구석에서 발견하는 추억인 필름사진이라는 특성상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글썽사진 한 컷과 힘들었던

습습함이 묻어나는 많은 감정이 담긴 일기장을 보면 싫든 좋든 나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디지털이 진화하고 있고 사람들은 모든 전자기기에 기억을 의존하는 요즘, 나는 아직까지 솔직한 아날로그적인 일기장이 좋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0년 11월 1일(월요일) ~ 11월 5일(금요일)

Table with 6 columns: Day, Meal, Dish 1, Dish 2, Dish 3, Dish 4. Rows include Breakfast, Lunch, Dinner, and Coffee/Tea.

위 식단은 식자재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 식당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국내산 / 쇠고기: 호주산 / 닭정육: 미국산(닭김치비용)을 사용합니다.

Grid-based table with 7 rows and 7 columns containing numbers 1-7 in various cells.

- List of 7 items: 1.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호수, 2. 분신 선석에서, 3. 생탕을 기계로 돌려 솜처럼 부풀려서 만든 과자, 4. 청자액에 함유되어 있는 탄백질 분해 효소의 혼합물, 5. 병역비리에 시달리고 있는 KGS 1박2일 멤버, 6. 딱의 거죽에 묻히는 고물, 7. 서울이 규칙적으로 되풀이 될 때의 그 규칙적인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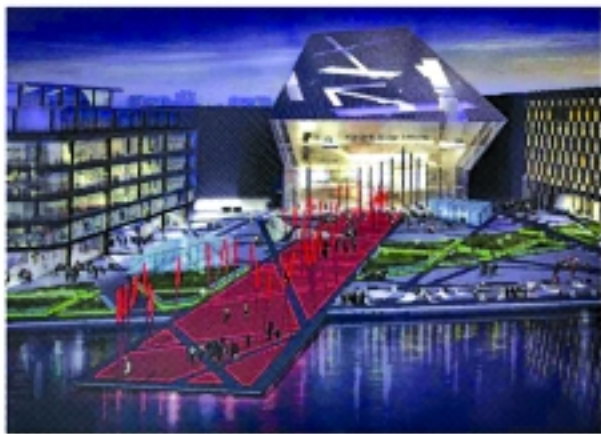
정답지 발표 김은희 (지정 2) 010-xxxx-9079 우지현 (행정 1) 010-xxxx-7500 이정호 (정시 1) 010-xxxx-8818

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정답지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지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한성대신문사(02-760-4186)

# 스타일을 입는 도시

## ‘사람과 도시의 어울림을 위한 디자인’, 알고보니 ‘시각적인 자극’에 정신팔려?



▲ 위 사진은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에 따라 변화한 현상이다. 세 번째부터는 지난 달 열린 서울시 디자인박람회 출품된 대학생들의 공공디자인 작품이다.

### 스타일이란 독특함이 우선하지만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2010년 대한민국 구축구축은 스타일에 물들고 있다. 상품 본연의 기능적 특징과 결합해 평범한 디자인 이상의 스타일리시함을 만들어낸다.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은 어떤 것일까? 『트렌드코리아2010』(김남도 지음, 미래의 창)에서는 “무언가 갖춰진 품격을 담아내는 것, 독특함이 우선하지만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술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제품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과 거리, 도시전체를 물들고 있다.

지난해 해화동에 즐맞추어 쌓아올린 형형색색의 문이 공사의 가림막으로 쓰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건축물은 기본이고 공사의 가림막도 화가의 작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보행자의 안전이라는 기능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디자인을 입은 것이다. 김현선(김현선디자인연구소소장)은 “이는 공공디자인으로 모두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디자인이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어울림, 인공물과 자연물과의 어울림, 자연과 사람과의 어울림, 사람과 도시와의 어울림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설명한다.

ICSID국제산업디자인단체총연합회 총회에서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를 서울로 지정하면서 서울시는 이에 따른 전략으로 도시 스타일을 담아내 심미적인 경관 향상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상징물 ‘해치’를 지정한 것, 예술의 전당 근처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 버스승차대가 어느새 투명한 창에 깔끔하게 자리잡게 된 것, 한강 르네상스 등은 디자인서울산업의 일부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디자인물결은 이름대로 공공을 위한 디자인으로 쓰여지고 있을까?

이러한 서울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분분하다. 김현선 소장은 “서울시의 버려진 공간에 대한 Re-design, 색채와 서체 개발을 통해 이뤄낸 정체성 정립은 600년간 이어온 서울의 이미지를 앞으로 천년 간 이어나가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그는 “런던의 거리와 서울의 거리의 공공시설물 종류와 수는 비슷하다. 하지만 자극적인 색채로 외관에 치중하는 서울의 거리에 비해 빨간우체통 이외에 배경색인 회색계열로 나름의 정취를 유지하는 런던의 모습은 확연히 비교되기도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미술평론가 홍경한씨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은 시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서체를 만들면서 간판의 글씨체와 형식을 획일화시킨다”며 “각각의 동네가 가진 특색을 살려 주민의 삶이 배어나는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간과하고 화려함으로 물들여가는 도시를 보면 그 나름의 개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외국을 모방한 공공디자인 사례가 많이 보인다. 무뎠다고 모방해 외관만 바꾸지 말고

### 한국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

속알맹이부터 차근차근히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싱가포르의 경우는 역사가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어진 역사에 대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것은 짚어져 도시 나름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은 청문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은 시민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홍경한씨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할 소통이 단절되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업적쌓기의 수단으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홍보수단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참여나 시민들을 위한 일은 뒤로 미룬 채 외관에만 치중하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대로 된 공공디자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언으로 “급박하게 도시를 바꾸려는 노력보다 그 기틀을 다지는 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거시적인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하여 차근차근히 한국의 특색을 드러내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Bon voyage~

## 순수했던 청춘을 떠올리며 양평 소나기마을을 걷다



▲ 황순원문학관에서 내려다본 소나기마을 정원에 가을이 칠게 물들고 있다.

“글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황순원(1915~2000)선생이 남긴 단편 소설 ‘소나기’의 한 장면이다. 맑은 사랑의 감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순수한 사랑의 울림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기에 세월의 흐름도 지워버리지 못한다. ‘소나기’의 소년과 소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곳은 경기도 양평군의 소나기마을이란 곳이다. 이틀도 참 예쁘다. 비록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이라도 이 마을에는 황순원문학관, 징검다리, 수숫단오솔길, 산책로 등이 들어

공들이 비를 피해 수숫단 속으로 몸을 피하는 장면을 재연해 볼 수 있다.

문학관 주변으로 산책 코스로 잘 조성돼 있어 사색을 즐기기에 좋다. 제1코스는 소나기광장-사랑의 무대-고백의 길로 이어지며 10분이 소요된다. 제2코스는 황순원묘역-수숫단 오솔길-고향의 숲-들꽃마을-송이저들판-너와 나만의 길-소나기광장을 잇는 길로 20분이 걸린다. 제3코스는 40분에 걸쳐 황순원묘역-수숫단 오솔길-고향의 숲-해와 달의 숲-학의 숲-목백이고개-송이저들판-너와 나만의 길-소나기광장을 돌아보게 된다.

황순원문학관과 소나기마을에서 문학기행으로 마음의 양식을 얻었다면 다음에는 양평 레일바이크로 가서 몸의 양식을 얻어보자. 양평레일바이크는 최근 들어 양평군의 대표적 여행지로 부상했다.

어떻게 해서 양평 땅에 소나기마을이 들어섰을까? 소설 속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아주 짧은 이 문장 하나가 양평 소나기마을 탄생의 원동력이 됐다. 상상이 현실로 구현된 것이다. 스토리의 힘은 이토록 강인하다.

소나기마을의 중심 건물은 황순원문학관이다.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피했던 수숫단을 형상화한 원뿔 모양 지붕의 건물이다. 문학관 중앙홀은 황순원선생의 삶, 문학, 시대를 해설해놓았고 제1전시실은 작가와의 만남, 제2전시실은 작품 속으로, 제3전시실은 남쪽별 영상실로 꾸며졌다.

황순원 선생이 쓰던 서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에 서면 마치 선생의 작가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밖에 유품원고, 졸업앨범, 책장, 안경, 시계, 교정본 등의 유품과 유품도 선생의 문학세계와 인생을 고스란히 되살려냈다. 소나기광장에는 노즐을 통해 인공적으로 소나기를 만드는 시설이 설치돼 하루 3회 소나기가 뿜어져 나와 관람객들은 소설 속의 주인공

을 기다린다. 하나의 선로로 왕복을 해야 하므로 출발 시각이 정해져 있다. 오전 9시, 10시30분, 12시, 오후 1시30분, 3시, 4시30분, 6시, 7시30분, 9시에 양평역을 출발하며(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마지막 2회가 중지됨)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용료는 커플용(2인승)이 1만8천원, 패밀리용(4인승)이 2만6천원이다.

황순원 선생이 쓰던 서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에 서면 마치 선생의 작가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밖에 유품원고, 졸업앨범, 책장, 안경, 시계, 교정본 등의 유품과 유품도 선생의 문학세계와 인생을 고스란히 되살려냈다. 소나기광장에는 노즐을 통해 인공적으로 소나기를 만드는 시설이 설치돼 하루 3회 소나기가 뿜어져 나와 관람객들은 소설 속의 주인공

(여행정보) 소나기마을 031-773-2299 양평레일바이크 031-775-9911 글·사진 유연태 (여행작가) 『대한민국 여행사전』 저자

## 모두들 소화도시나요?

## 모두 함께 외쳐보아요! 우와이디와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주위는 공연 10분 전부터 악기를 튜닝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율동과 영화음악들로 선곡되어 익숙한 멜로디가 발길을 잡아끈다. 시후 30분 동안 열리는 이 공연은 관객들의 ‘소화’를 위한 공연으로 식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관람대상은 ‘직장상사의 잔소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 ‘안 돌아가는 머리 쥐어뜯으며 공부하느라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에 고생하는 학생’, ‘그 외 답답한 속을 문화로 소화시키고 싶은 모든 사람’이다. 이처럼 병원의 처방전이나 약국에서 불행한 이름을 가진 ‘소화제’ 콘서트는 각박한 현대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위해 ‘문화’로 답답한 속을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벌어졌다.

악단의 공연이 열렸다. 재즈피아노와 기타를 연주하는 아티스트 두 사람의 하모니는 짧은 점심시간의 달콤한 휴식으로 다가온다.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 및 광고음악을 들는 관객들은 ‘소화가 다 된 듯’ 평온한 표정이다.

이 공연을 기획한 이보영(공연사업팀)씨는 “약으로서의 소화제가 아니라 식후에 평온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공연을 생각하다 기획하게 되었다”며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곡들 위주로 선곡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함으로써 이후에는 가까운 곳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을 하는 관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가끔 이 곳을 찾는다. 김성재(사회사업팀)씨는 “지나가다 음악소리를 듣고 들어왔다. 점심을 먹고 잠시 음악을 즐기는 지금이 너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화제콘서트 공연은 오는 12월31일까지 매주 화·수



▲ 지난달 20일 열린 소화제 콘서트에서 ‘Lucky’라는 곡을 연주하고 있다.

요일 12시30분부터 30분간 구로아트밸리 예술센터에서 열린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Talk/Talk! cinema ‘브릭’

## ‘브릭’, ‘대부’의 돈 코르네오네가 고등학생이었다면?



‘대부’의 돈 코르네오네(말론 브란도)가 청바지를 입었다고 상상해 보자. 시가(cigar) 대신 사탕을 빨고, 위스키 대신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중대 사안을 논하는 모습은 또 어떤가? 갑자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하겠지만, 그 이상한 상상이 ‘브릭’을 보면 저절로 된다. 1950년대 할리우드를 풍미하던 필름 노

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브릭’은 마치 ‘대부’의 고등학교 버전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주인공들중도 발급 안 된 청소년들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영화가 ‘촌스럽거나, 싱겁거나, 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하는 행동들이 다소 엉뚱하기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엄청 심각하고 진지하다. 게다가 마약 거래부터 살인까지 그 죄질 또한 어른 못지않으니, 기괴하고 독특한 영화를 만나고 싶다면 추천한다. ‘브릭’이다.

영화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다. 돌굴 앞에 버려진 여자의 시체. 그 시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남자. 이 돌을 배경으로 80년대 범죄 드라마 ‘트윈픽스’에나 나올법한 묘한 음악과 분위기가 깔린다. 짧은 문장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분위기다. 의외스러운 게 있다면, 이 분위기에 살짝 곁도는

남자의 모습이다. 만지 근 외이어 안경, 너털 너털한 재킷, 형틀이진 머리의 옛된 남자는 형사라 하기에 뭔가 부족해 보인다. 그런데 그게 또 어설퍼 보이지 않는 게, 표정 하나 만큼은 말론 브란도 저리가리 할 정도로 다부지다. 이 오프닝은 앞으로 전개 될 ‘브릭’의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다. 그러니까, 진지함 속에 끼여든 언밸런스한 분위기가 ‘브릭’의 매력이자, 힘이자, 묘미라

는 얘기다. 앞서 영화의 문은 연 남자와 시체는 주인공 브랜든(조셀 고든 레빗)과 그의 여자 친구 에밀리(앨리 드 라빈다). ‘구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던 에밀리를 시체로 발견한 브랜든은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학교 퀸아 로라노라 제히트너로부터 이 사건에 학교 내 마약그룹이 연관돼 있고,

그 중심에 브릭(마약)의 일종인 판매하는 조직의 리더 킹 린(루카스 하스)이 있음을 알게 된다.

정통 노와트 문법과 하이틴 무비스러운 재기발랄함을 무리 없이 이종배합 한 이는 신에 라이언 존슨감독이다. 그는 고등학교라는 장소를 빌어 ‘엘리트 무리에 대한 동경’, ‘조각난 우정’과 ‘살인은 사랑’ 등 10대 청춘들의 심리를 밀도있게 담아냈다. 이러한 감독의 연출에 온몸으로 화답한 이는 브랜든 역의 조셀 고든-레빗, 최근 ‘인셉션’으로 유명해진 그 배우다. 아역 배우 출신인 그에게 ‘브릭’은 성인 무대로 가는 날개를 달아주기도 했다. 영화는 2005년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글·정사우 (무비메트 기자)

## 사진이야기



### 여행, 내 마음의 안식처

끝없는 인생을 달려 나가면 숨이 차오른다 때로는 마음이 숨 쉴 수 있게 문명과 잠시 작별해 보자. 캄보디아 빅토리아 해변, 캄리엔과 맥주 한 잔..

정현준 (기계 4)